

법 문

오늘 우리는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행하여 마침내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보현행원의 자세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일찍이 불교의 모든 보살님들은 중생을 위한 정진에 머뭇거림이 없었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길에는 항상 부처님께서도 나투셨습니다.

우리가 마음마저 향기로 장엄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간절하게 발원하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모으고 남북의 평화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숙원을, 전 세계가 함께 한다는 것에 큰 뜻이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을 통해 평화를 추구하고 함께 화합하는 올림픽의 정신은 우리 민족의 고유의 전통이며 불교 사상과도 일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미 평창은 두번의 유치에 실패했지만 이를 계기로 더욱 완벽한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멈추지 않은 평창의 도전은 안타까움이 아니라 행복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올림픽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며 “땅에 넘어진 자, 땅에서 일어나라”는 옛 선지식의 가르침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12년간 강원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실현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올림픽 유치를 통해 하나 되고 남과 북, 세계의 평화를 실현하는 길로 함께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것이야말로 우리 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자성과 쇄신 결사의 수행결사와 평화결사에 해당하는 길입니다. 불교계가 한 목소리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기원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결사의 정신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불교, 세계인과 함께하는 한국불교를 실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준비된 자만이 나아갈 수 있고, 항상 노력하면 소원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숭고한 법석으로 올림픽 유치라는 마지막 정점이 찍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 올림픽의 유치와 함께 온 누리에 평화와 화합의 정신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수고하신 포교원장 혜총스님과 함께해 준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올림픽 유치를 위해 진력하신 이건희 IOC 위원님과 조양호 유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정관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창 그리고 강원도민의 헌신은 온 국민의 희망이었습니다. 부처님께 간절히 서원하는 진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평창의 성공적인 유치를 기원하겠습니다.

불기2555년 6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